

# “메달 사냥만 남았다”...광주·전남 빛낼 태극전사들



도쿄올림픽 오늘 개막...광주·전남 출신 기대주들

광주시청 전용태 근대5종 첫 올림픽 메달 딸지 주목  
화순 출신 임애지 맥 끄긴 여자복싱 금맥 캐기 나서  
양궁 안산·배드민턴 안세영·펜싱 강영미 등도 출격

대한민국 선수단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를 목표로 잡고 있다. 광주·전남 선수들도 대한민국의 메달레이스에 힘을 보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과 함께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를 새로 쓸 유망주로 꼽힌다.

광주시청 전용태는 한국 근대 5종 종목에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길 후보다. 그는 2021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2차 대회 남자부 정상상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에 한발짝 다가섰다.

지난 9일에는 정진화와 조을 이워 출전한 2021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남자계주에서 2위에 오르는 등 메달 전망을 밝혔다.

화순 출신 임애지는 한국 여자 복싱 부흥을 이끌 어낼 기대주다.

한국 여자 복싱은 지난 2012 런던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단 한차례도 본선에 진입하지 못했다. 1994년 LA올림픽에서 1개,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낸 이후 맥이 끊겼다. 임애지는 도쿄에서 여성 페더급(54-57kg)에 출전, 금맥 캐기에 나선다.

양궁 유망주 안산(광주여대)은 대학 선배인 기보배(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와 최미선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 등 한국 여자 양궁의 계보를 이을 재목으로 꼽힌다. 최근 열린 '광주 아시안컵 1차 양궁대회'에서 혼성단체전과 여자부 단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자 대표팀 중 막내인 그는 세계 양궁계에선 유망주다. 이미 광주체고 2학년이던 2018년부터 매년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9년 7월 처음 출전한 세계 대회(독일 베를린 월드컵)에서 개인, 혼성 2관왕에 올랐다.

광주체고 출신으로 실업팀 삼성생명에서 뛰고 있는 배드민턴의 안세영도 기록에 도전한다. 그가 금메달을 따내면 올림픽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된다. 현재 19세인 그는 20세에 올림픽 메달을 따낸 방수현·라경민·이용대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최연소이자 사상 첫 10대 메달리스트가 된다. 방수현 이래 25년 단식 노메달의 불명예도 씻는다.

광주체고 진학 후 3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았던 안세영은 세계랭킹 8위로 일찌감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광주체고 졸업 후 올해 삼성생명에 입단해 성인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 금메달 꿈을 키우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권하림은 최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1 국제수영연맹(FINA) 다



전용태

이빙 월드컵 나흘째 여자 10m 플랫폼 예선에서 10위에 올라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여자 펜싱 강영미(광주 서구청)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예매 개인전 금메달리스트다. 2021 카잔월드컵 대회에서 단체전 은, 개인 동메달을 획득한 베테랑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연과 순천시청 강유정과 여자유도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다.

축구에서는 엄원상(광주FC)이 출전한다. 금호고 출신의 엄원상은 프로 두 번째 해인 2020시즌



임애지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고, 이해 11월 '벤투호'에 승선해 멕시코·카타르와의 원정 2연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도 치렀다. 무릎 부상으로 지난 3월 한일전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특급 스피드를 앞세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구기 종목에서는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원선필과 강경민이 '우승' 신화 재현에 나선다. 원선필은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주역이고, 강경민은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2년 연속 득점왕과 MVP에 오른 스타플레이어다. 강경민은 2020-



안세영

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정규리그 득점 1위(206득점), 공격포인트 1위(275개)를 차지했고 두차례 리그 MVP에 올랐다.

우승을 노리는 야구 대표팀에서는 KIA 타이거즈 '슈퍼루키' 이의리가 마운드에 나선다. 동성고 출신의 내야수 최주환(SSG)과 화순고를 졸업한 사이드암 고영표(KT)도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광주일고 출신의 투수 내야수 허경민도 야구대표팀의 금메달 도전에 함께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데뷔골’ 이순민 최고의 날...광주FC 3-1 승리 기여

광주FC 이순민의 '예감 좋은 날'이었다. 광주는 지난 2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K리그1 20라운드 경기에서 3-1로 승리를 거뒀다. 9경기 만에 기록된 귀환 승리였다.

김호영 감독이 "전략적으로 준비한 대로 선수들이 잘 해냈다. 기분 좋은 경기였고, 감사한 경기였다"고 언급할 정도로 모든 선수가 환상적인 호흡으로 후반기를 기분 좋은 승리로 열었다.

이날 특히 눈길을 끈 선수는 이순민이었다. 이순민은 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아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페널티박스 밑에 밀집해있던 선수들을 모두 뚫고 골대를 때린 공은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감격 놀란 장면, 하지만 2017년 데뷔 이후 첫 골을 기록한 이순민만 침착했다.

이순민은 "공이 굴러 올 때 들어갈 것 같았다. 때리면 들어갈 것 같았다. 맞는 순간 날아가는 궤적을 보고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다. 경기에 필요한 공을 넣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하게 경기 전부터 느낌이 왔다.

이순민은 "훈련할 때부터 감독, 코치님이 세컨 볼 강조를 많이 하셨다. 세트피스 때 주시라라고 주문하셨고 그런 훈련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런 장면이 나왔다"며 "또 훈련할 때 동료들이 '이제 골을 넣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 했다.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결말 것 같았다. 상상은 했지만 예상은 하지 못했다"고 웃었다.

2017년 광주를 통해 프로 선수가 됐지만, 같은 해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한 그는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K3 포천시민구단에서 뛰었다. 지난해 광주로 복귀해 기대했던 데뷔전은 치렀지만 두 경기 출장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올 시즌 이순민은 '멀티플레이어'라는 장점을 살려 11경기에 출전, 본격적인 축구 인생



광주FC의 이순민(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을 펼치고 있다.

이순민은 "그만 뒤야 하나는 생각도 했었다. 돌아보면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부족했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됐다"며 "김호영 감독님께서 강조하신 게 모든 선수가 주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험과 상관없이 훈련에서 보여준 대로 기용해주시길 것이라고 했고 그게 동기 부여가 됐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 같다. 학창시절 때부터 장점 중 하나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보여드렸다"고 언급했다.

전력이 약한 광주에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면서 전전후 이순민은 기회를 얻었다.

골키퍼로 축구를 시작한 그는 매년 다른 포지션에서 뛰었다. 좌우도 가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포지션을 소화했다. 경기를 뛰는 자체가 감사했던 그에게 멀티포지션은 아쉬움이 아니라 강점이 됐다.

이순민은 꿈꾸던 데뷔골을 넣은 뒤 그라운드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이순민은 "골 넣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데뷔골이기도 하고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걸 처음 느꼈다. 골 넣고 돌았는데 영광해주시는 팬분들이 바로 보였다. 그 환호와 함성을 깊이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세리머니를 했다"며 "예감 좋았던 날"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원정 무패’ vs ‘전남전 무패’

K리그2 전남 25일 부천 원정경기

‘원정 무패’의 전남과 ‘전남전 무패’의 부천이 격돌한다.

전남드래곤즈가 25일 오후 8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K리그2 2021 2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최근 4경기 무실점 행진을 펼쳤던 전남은 지난 21라운드 충남아산과의 홈경기에서 한 번에 3골을 내주면서 0-3 패배를 기록했다.

그리고 승점 1점 차 3위에 있던 김천삼우가 서울 이랜드와 0-0 무승부를 기록, 득점에서 밀린 전남은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올 시즌 최대 실점과 함께 아쉬운 패배가 기록됐지만 1위 안양이 2점 차 가시권에 있다. 전남은 대패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부천 원정길에 나선다.

전남과 부천 서로 믿는 구석이 있다.

올 시즌 9승 7무 5패(승점 34)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은 원정에서 10경기 무패행진(5승 5무)을 달리고 있다. 승점 34점 중 20점을 원정길에서 챙겼다.

부천은 전남전이 자신 있다. 최하위에서 고전하는 부천이지만 올 시즌 전남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 대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부천은 지난 16라운드 원정경기에서는 전남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부천은 이 승리 이후 세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최근 2연패 중이다.

반등이 필요한 두 팀의 대결, 전남이 승리로 '무패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 전반전만 뛰고도 ‘1골 2도움’

프리시즌 첫 경기서 맹활약

손흥민(토트넘)이 소속팀에 돌아와 치른 첫 프리시즌 경기에서 전반전만 소화하고도 3골에 모두 관여하는 맹활약으로 승리를 견인했다.

손흥민은 22일 열린 콜체스터 유나이티드(4부 리그)와 프리시즌 친선경기에 선발 출전해 결승골을 포함해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지난달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를 소화한 뒤 이달 20일 토트넘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이를 만에 경기를 치르며 팀의 모든 골에 관여했다.

지난 18일 레이턴 오리엔트(4부)와 프리시즌 첫 친선경기에서 1-1로 비겼던 토트넘은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 새롭기 지휘봉을 잡은 누누 이스

피리투 산투 감독의 토트넘 첫 승이기도 하다.

손흥민은 전반 11분 만에 결승골을 뽑아냈다. 중원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격을 시작한 손흥민은 이내 상대 진영으로 질주했고, 스테반 베르헤인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내준 패스를 정면으로 달려들며 마무리했다.

토트넘은 3분 만에 추가 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의 코너킥을 루카스 모라가 머리로 밀어 넣었다.

전반 38분에는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델리 알리가 문전에서 마무리했다. 이미 전반에 제 몫을 다한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함께 데인 스캇렛과 교체됐다.

지난 시즌 공식전 51경기에서 22골 17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손흥민은 변함없는 골 감각으로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위도우
- 2관 블랙 위도우
- 3관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아이스 로드
- 4관 보스 베이비 2
- 5관 보스 베이비 2
- 6관 랑종
- 9관 랑종
- 7관 씨네케틀: 크루엘라,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워스, 더 레지드: 악령의 저주
- 8관 씨네케틀: 아이스 로드, 발신제한, 나만 보이니, 옥스포드 살인사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클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